『영어영문학연구』 제48권 제2호
(2022) 여름 25－45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http://dx.doi.org/10.21559/aellk.2022.48.2.002

『채식주의자』와 『빌러비드』에 나타난 몸-권력 욕망과 생명의 통치성

변 효 정
(대진대학교)

Byun, Hyojeong. "Desire of Body-Power and Governmentality of Life in *The Vegetarian* and *Belove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2 (2022): 25-45. This study explores the resistance of bare life that can frustrate desire of prejudiced mainstream classes to dominate, control, and conquer the weak women in man-focused and white-centered society in *The Vegetarian* and *Beloved*. This paper, in the process, examines the meaning of governmentality of life focusing on not just survival, but restoration of life and self-realization of excluded lives to inculcate human values beyond absurdity and restriction of society. This is an attempt to newly analyze the meaning of absolute and prevalent power throughout society, which Han Kang and Toni Morrison have noted, and can convey the message that the absurdity of society can be rectified through the power of governmentality of real life. It leads to embodying the meaning of desire for the real body-power of human existence and the energy of life controlling of human spirit and soul. Each protagonist, Yeong-hye and Sethe in the two works, is ultimately reborn as a true subject of life with the spontaneity of desire and provides a new chance to interpret these novels in a sense of rebirth of life. This, in the end, proves that the exercise of irrational power by the mainstream and the ruling classes is to be neutralized in the face of the power of life and true love, enhancing the future value of these two novels. (Daejin University)

Key Words: *The Vegetarian*, *Beloved*, governmentality of life, body-power, power of life and true love

I. 들어가며

인간의 몸과 욕망, 생명과 권력, 통치성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구현하는 작품들인 한강(Han Kang)의 2016년 맨 부커 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수상작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 2007)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퓰리처 상 수상작 『빌러비드』(*Beloved*, 1987)는 인간 사회의 규율과 권력 관계, 인간 주체의 주권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생명의 통치성의 가치를 고찰하는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은 시간, 역사, 문화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만큼 전자는 성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속박 받는 여성의 몸과 생명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고 후자는 인종적으로 속박 받는 흑인 여성들의 삶과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2008년 이후부터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세 편의 단편 소설이 한 데 묶인 작품으로 21세기 한국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가부장적인 남성 인물들의 권력 구현의 양상이 여주인공인 영혜의 삶과 생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공간과 생태 비평, 에코페미니즘, 라캉의 욕망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등의 주된 학문적 분석과의 차별화를 위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몸-권력에 초점을 맞춰 그녀가 남성 주권의 예외화를 시도하는 모습과 자신의 몸을 목적을 행사하는 몸으로 바라보며 몸-권력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인간 생명의 진일보한 의미를 밝히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푸코의 몸과 주체는 역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영혜는 그의 몸-권력의 철학을 자신의 영혼의 재생과 진정한 생명의 가시화의 과정으로써 보여주며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를 그녀의 “행위의 행위”로 구현하고 있다. 관계적인 성격을 띠는 푸코의 권력의 장에서 영혜가 보여주는 몸의 저항과 그녀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하는 진정한 생명 권력의 구현의 모습은 그녀의 길들여지는 몸에의 적극적인 저항과 거부의 몸짓으로 표면화 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영혜의 생명의 이탈의 과정을 세계를 수용하는 그녀의 몸-주체의 저항의 모습으로써 살피되 남성 중심적인 힘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몸-권력으로써 힘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노예제 속의 흑인의 역사와 흑인 여성의 심리적 고통 그리고 상처 치유와 회복의 문제를 현 시대에 더욱 빈발하게 양산되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의 개념으로 적나라하게 진단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화[1]의 의미, 조에(zoe)와 비오스(bios)적 삶[2]이 주는 교훈, 배려의 권력으로 불리는 사목권력[3]에 의해 흑인 공동체와 흑인의 생명이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흑인 여성의 흑인 여성에 의한 능동적인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16세기 『정치의 거울』에서 군주의 통치를 설파한 라 페리에르(La Perrière)는 통치자라 불리는 사람의 범주를 왕, 군주, 고위 성직자 등으로 보았고 통치의 대상을 집, 영혼, 아동, 종교 단체 등으로 바라보았지만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통치의 범주를 고통 받는 소외된 자로 확장하고 통치의 영역을 인간의 온전한 생명으로까지 바라보며 새로운 통치의 예시를 제시한다. 라 페리에르는 17세기와 18세기에도 통치가 인간으로 대표되는 사물의 통치임을 강조하며 "인간과 사물의 뒤얽힘으로 이해된 사물의 관리가 통치라는 점"(고든, 버첼 그리고 밀러 142)과 "통치란 적절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사물의 올바른 배치이다"(고든, 버첼 그리고 밀러 143)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통치에는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며 힘을 과시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세드(Sethe)의 죽은 딸 빌러비드(Beloved)가 백인 통치의 최대 피해자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인내를 가진 최고의 생명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물로 치부되었던 흑인의 올바른 생명 배치를 통해 생명 통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21세기에 『빌러비드』를 다시 읽는 시도로서 주인공 세드와 빌러비드의 진정한 생명 구현의 의미에 천착하여 예외상태에 있

[1]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언급한 호모 사케르는 흡사 범죄자와 같은 존재이자 중심부에서 쫓겨난 존재로 제물화 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주권자의 행세를 하며 죽여도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2] 그리스인들은 조에와 비오스라는 표현으로써 삶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동물, 인간, 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단순히 살아있음을 가리키고, 후자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지칭한다.

[3] 이 작품에서 사목권력이란 "무리의 구제"(푸코 『안전, 영토, 인구』, 185)를 핵심 목표로 하는 만큼 흑인의 생명의 가치와 주권의 의미를 공고히 하는 핵심어가 될 수 있고 인간의 화해와 진정한 자유 그리고 치유의 실효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세드가 탈 호모 사케르화 되어가는 과정과 가족과 흑인 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육화된 빌러비드가 배려와 선행의 권력인 사목권력으로써 상처로 얼룩진 흑인 여성과 흑인 공동체의 생명을 포용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채식주의자』와 『빌러비드』는 모두 인간의 지배욕, 권력욕, 정복욕에 기반을 둔 주권 권력이 어떻게 성, 인종, 문화, 사회, 국가 내에서 개인과 집단의 감시와 배제를 통해 인간 주체를 예속화시키는지를 보여주며 권력의 강제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벌거벗은 생명들의 다양한 저항의 모습을 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그들만의 용기 있는 결단력과 잠재성을 보여주며 과감한 투쟁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사회적 규범과 경계를 벗어나 자신의 영혼과 몸의 구원을 동반한 자기실현의 모습을 보여준다. 통치당하지 않을 앎의 반란의 과정에서 그들의 몸은 비로소 외적인 억압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이상 소외와 감시가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사회의 감시체제를 무력화시킨다.[4] 이는 궁극적으로 한강과 모리슨이 전하고자 하는 욕망의 자발성의 의미를 구현함과 동시에 두 작품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주체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인간애가 깃든 생명의 통치성에 대한 새롭고도 비전적인 해석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Ⅱ. 생명의 이탈자 그리고 몸-권력 욕망

『채식주의자』의 주요 남성 인물들은 모두 권력과 지배를 통해 여성들의 동요를 통제하고 신체와 정신을 지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먼저 영혜의 남편의 본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은 제1장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장면인 영혜가 병원 분수대 옆 벤치에서 환자복 상의를 벗은 채 홀로 앉아 있는 모습과 연관된

[4] “끝없이 열려 있는 전략적 게임”(고든, 버첼 그리고 밀러 20)을 권력이라고 여기는 푸코는 1982년 「주체와 권력」에서 권력이란 단순한 물리력이나 폭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권력이 된다고 주장한다”(고든, 버첼 그리고 밀러 19). 이는 두 작품의 주인공들인 영혜와 세드와 빌러비드가 최종적으로 이뤄낸 자신들만의 권력으로 고정된 권력을 가변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이동시킨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애써 "책임의 관성"(52)[5]이라 표현하며 속으로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 . .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52)고 고백하는데 이때 그는 영혜를 단순히 조에의 존재로만 응시할 뿐이다. 조에는 자연 생명을 지칭하는 말로 단순히 살아 있음을 표현하는 용어이기에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생명을 지칭한다. 일찍이 아감벤은 조에를 "유아기의 영역"(머레이 167)으로 제시하여 조에로 부터 벗어나는 행위로써 삶에 자격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주목하였다. 이는 영혜가 이 작품에서 살아 있으나 생명 밖의 이탈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며 이탈자라는 벌거벗은 생명이 주권 권력이라는 정치적인 내부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으로 아감벤의 사유의 특징인 사이(in-between)의 의미에 집중하게 한다.

푸코에게 있어 주체의 개념은 "통제나 의존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의식 또는 자기 지식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에 매여 있는"(강미라 재인용 139) 존재이다. 비록 이 작품에서 영혜는 주체의 영역 밖에 있는 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채식주의자」의 말미에서 병원 벤치에 앉아 동박새를 물어뜯는 모습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스스로 주체의 영역으로의 이동을 꾀한다. 영혜의 이러한 모습은 육식을 욕망하는 사회의 남성들이 갈망하는 지배욕에 대항하는 저항의 행위로 그녀는 그들의 권력이란 한낱 동박새 정도를 다스리는 하찮은 권력욕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타인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적극적인 신체 언어를 통해 육식 사회의 주체로 규정된 남성들이 가진 생명 주권의 허상을 그녀만의 몸-권력으로써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특정한 권력 작용에 의해 주조되는 만큼 푸코는 몸을 "권력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것"(강미라 19)으로 바라보며 몸과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정치적 의도의 개입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몸이란 불안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영혜는 이 작품에서 규율을 체화하도록 강제하는 규율 권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진취적인 행위, 즉 자신의 자율 권력으로써 생명의 능동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영혜의 남편은 영혜가 지극히 평범한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와 결혼을 하

[5] Han Kang, *The Vegetarian* (London: Granta Publications, 2015) 이후 이 작품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 페이지 숫자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여 함께 하는 동안 내내 그녀의 정신, 성, 육체를 지배하는 주권자처럼 행동하였다. 마치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인형처럼 영혜를 대하는 그는 그녀에 대해 「채식주의자」의 초반부터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고, 내가 아무리 늦게 귀가해도 절대 개의치 않았다. 함께 하는 휴일에조차도 어디론가 함께 외출하자고 요구하지도 않았다"(4)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그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지극히 만족하며 안도를 표한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조용히 지내는 영혜와는 달리 가정이라는 자신의 작은 제국 안에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미쳤어?,"(15) "당신 제 정신이야?,"(16) "제기랄!,"(17) "미쳤군, 완전히 맛이 갔어,"(17) "다시 해, 화장"(27) 등과 같이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어조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그가 가정이라는 작은 힘의 놀이터에서 자신만의 규율과 지배욕으로 영혜의 실존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마비시키려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은 어느 날 그가 직장 상사와의 부부동반 회식자리에 영혜를 데리고 갔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젖꼭지가 비치는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앉아 식사 자리의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채식만을 고집한다. 이로 인해 그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왕국과 규율이 타격을 입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평소 아내가 갈비나 생닭을 만지며 요리하는 모습에 젖어있었음을 상기할 뿐 그녀가 그동안 토로한 끔찍한 꿈들과 그녀의 내면의 불안을 외면했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영혜가 중심이 되는 일말의 주권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차원으로 장인에게 구조를 요청한다. 이는 그가 또 다른 남성인 장인의 지배욕을 자극하여 영혜를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탈자인 호모 사케르로 만드는 행위로 그녀가 가족의 룰을 어겼을 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권력 박탈의 공공연한 단죄의 과정이 된다.

> 고통스럽게 거부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어른은 탕수육을 짓이겨 버렸다. 그는 힘을 준 손가락으로 아내의 두 입술을 열었으나, 다물린 이를 어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다시 화가 치민 그가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 . . 아내는 이를 앙 다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칼을 치켜들었다. '얘 좀 말려 . . . .' '물러나!' 아내의 손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빨간 피가 하얀 접시에 선명히 튀었다.

> My father-in-law mashed the pork to a pulp on my wife's lips as she struggled in agony. Though he parted her lips with his strong fingers, he could do nothing about her clenched teeth. Eventually he flew into a passion again, and struck her in the face once more. . . . Jaw clenched, her intent stare facing each one of us down in turn, my wife brandished the knife. 'Stop her . . .' 'Stay back!' Blood ribboned out of her wrist. The shock of red splashed over white china. (40-1)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영혜의 가족들은 다른 규칙의 가능성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영혜에게는 철저히 가족 내의 규칙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그녀의 몸을 먼저 통제한다. 하지만 이 순간 영혜는 권력의 역학 관계를 자신의 몸의 적극성으로 깨고 아감벤이 언급한 예외화의 상태에 자신 스스로가 들어가 오히려 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붙들리며 배제된 채 포함된 상태에 있기를 선택한다. 영혜의 아버지와 남편이 자신들의 주권 권력으로써 생명의 억압을 주도하며 그녀로 하여금 생중사의 상태, 다시 말해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되게 만든 이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인간 주체와 생명의 의미를 재창출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자 칼의 권리를 빌어 이들에 강력히 저항한다. 이는 과거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상습적인 체벌과 학대라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영혜가 권력 욕망이 반복해서 재생될 때 생성되는 악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려는 진취적인 행위이자 남성 자신들이 설정한 모든 것을 정상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한 목적 없는 수단을 좌절시키는 혁명적인 행동이 된다.

엄격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은 영혜가 꿈속에서 만나는 "피 웅덩이에 . . . 비친 얼굴"(19)로 대변되기도 한다. 이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권력욕은 전염성이 강해 영혜조차도 꿈속에서는 누군가의 목을 자르고 깨어나서조차도 비둘기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한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탈자가 된 영혜는 아감벤이 언급한 배제와 추방으로 연결되는 삶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여성을 먹어 해치우는 남성 지배의 논리가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제2장 「몽고반점」에서 영혜의 형부는 그녀를 미학적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비장소(non-place)로서의 기능을 하며 영혜가 가진 몽고반점에 대한 그의 강렬한 성욕을 정당화시키고 그의 은

밀한 내적 욕망을 투사시키는 푸코가 언급한 매음굴 즉, 환상의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그는 예술을 명목으로 자신의 지배욕과 성욕을 채우고자 먼저 기억과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혜의 몸을 바디페인팅으로 은폐하는 시도를 한다. 이때 영혜의 신체가 유린당한다는 것은 그녀의 언어와 정신이 영구적으로 그가 촬영하는 비디오테이프에 봉인된다는 암묵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게다가 그는 카메라의 폭력적인 시선 앞에서 영혜의 몽고반점을 "이걸 내 혀로 옮겨오면 좋겠어"(114)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몽고반점이 갖는 절대 권력을 언어로 표출하고 싶은 그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영혜의 몸에 대한 형부의 갈망은 영혜의 몽고반점이 의미하는 주체화의 표식을 무력화시키려는 도전이자 그의 지배욕이 작용한 것으로 겉으로는 그녀의 구원을 가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녀를 기만의 규율로 다스리는 행위가 된다. 이는 몸을 권력관계의 요소로 병합시키는 "성 장치"(강미라 『몸 주체 권력』, 120)의 일환이자 남성이 여성에게 갖는 사도-마조히즘적 권력으로 그의 행위는 일종의 사드-마조히즘 소동이 된다.

영혜는 가족이라는 집합적인 공간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기에 「몽고반점」에서 사회가 정한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 몸의 언어로 비오스적인 삶을 시도하였다. 푸코에게 있어 "몸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권력의 작용 지점"(강미라 『몸 주체 권력』, 122)이기에 인간 삶의 주체적 장소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목격한 친언니 인혜로 인해 영혜는 정신 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자신이 갈망한 주권자의 삶의 영역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사회적 이탈자로 간주되어 형벌을 상징하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영혜는 다시 한 번 안과 밖의 경계에 놓이게 되고 "스스로를 무효화하면서도 또 더 이상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는 법의 . . . 잠재성"(머레이 174)을 위해 이곳에서 몸-권력의 재창출을 도모한다.

"주권적 추방에 포획된 피해자"(머레이 174)로서 정신병원에 갇힌 영혜는 이제 인혜로 하여금 두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재기억의 촉매자이자 기존 주권의 전복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생명의 주체자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보인다. 이곳에서 영혜는 겉으로는 포획된 생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스릴 수 있는 호모 사케르처럼 보이지만 "나무되기"를 통한 그녀만의 탈-객체화를 시도하며 축성병원을 남성 주권의 예외화와 무력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영혜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그간 남성 권력으로 대표되었던 육식을 홀가분하게 거부한 채 생명의 에너지로 집약될 수 있는 식물되기에 집중한다. 푸코의 몸은 권력의 의도를 담는 "목적적 행위를 하는 몸"(강미라 『몸 주체 권력』, 125)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힘의 진실을 파헤쳐 거대한 감금망 안에서라도 마비될 수 없는 몸을 만드는 새로운 권력 요소가 된다.

정신병원은 그 폐쇄성이 갖는 이미지와 달리 인간의 육체에 가해지는 폭력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고 처벌과 감시 등을 통해 영혼의 실재성이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예외 상태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는 곳인 수용소와도 같은 이곳에서 영혜는 비로소 모든 욕망이 배제된 나무의 육체를 갈망하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나무되기 의지를 두고 죽음을 담보하는 행위라는 분석도 있지만 나무는 국가, 사회, 가정으로 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영혜의 자유의 몸을 상징하며 그녀 스스로 주권적 몸-권력의 주체가 되려는 용기와 노력 나아가 그녀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결국 몸으로 대변되는 영혼의 수호를 통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영혜는 스스로 주류의 힘에 포획되지 않는 주체적인 생명의 통치자로 거듭난다.

결국 이로써 영혜는 남성지배 권력의 욕망을 해체하려는 새로운 출구를 열고자 새벽녘 냉장고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심한 이후 형부의 작업실에서 경계에 선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축성병원이라는 정신병원에서 남성의 권력 욕망을 최종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녀만의 몸-권력을 실행함으로써 타자의 지배를 허용하지도 그 지배에 잠식당하지도 않는 생명 주체로서 성공적으로 거듭나고 있다.

Ⅲ. 생명의 주체자 그리고 생명의 통치성

『빌러비드』는 노예제로 인해 교차적 억압과 고통으로 얼룩진 흑인 여성들의 생명과 생명권에 집중한 작품이다. "노예제는 남성들에게 있어 끔찍한 것이지만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끔찍한 것"(Jacobs 85)이라는 비평의 연장선상에서 우샤 푸리(Usha Puri)는 모리슨의 작품들은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투쟁을 그린다"(Gogoi 17)고 언급한다. 노예로 불리는 그녀들은 "페르소나, 즉 법적 지위"(아감벤『벌거벗음』, 80)가 없는 벌거벗은 생명들이다. 그렇기에『빌러비드』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들의 투쟁은 흑인 생명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통치를 갈망하는 행위가 된다.

『빌러비드』의 흑인 여성들은 백인들이 주권자로 행세하며 흑인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현실 속에서 백인들이 죽여도 되는 호모 사케르로 살아가지만 자신들만의 생명 주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강화하는 통제 권력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담보된 미래를 위해 몸부림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비평가인 바하스카 슈클라(Bhaskar A. Shukla)는 "모리슨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동화되거나 이를 버림으로써 자아의 통합을 획득하는 배제된 개인의 여정을 그린다"(7)고 언급한다. 이 작품에서 흑인 여성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조에의 상태로 규정되어 차별과 감시와 배제의 중심부에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실현시키고자 끊임없이 비오스를 갈망한다. 그런 그녀들의 비오스적 몸짓은 지배 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저항으로 표출되는데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 정신적·신체적 학대의 극복, 춤과 노래를 통한 제의적 심신 치유, 공동체와의 화합 도모, 상호간의 돌봄, 포용, 관용, 용서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 성, 계급, 인종적으로 백인들에게 단죄당해 도망자, 노예, 죄인, 동물, 난민 등으로 취급받는 이 작품의 흑인 여성들 중에서 특히 주인공인 세드는 백인 남성들이 덧씌운 이탈자 프레임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자발적 주권을 찾으려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스위트 홈(Sweet Home)의 이전 농장주였던 가아너(Mr. Garner) 체제에서는 비교적 존중받는 노예로 살았지만 가아너 사후 농장의 관리자가 학교선생(Schoolteacher)으로 바뀌면서 강제수용소와도 같은 이곳에서 스스로 생명을 수호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흑인들의 생명을 손쉽게 소비하고 가혹하게 다루며 재생산함으로써 백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학교선생의 통치하에서 세드는 극심한 노동, 폭력과 채찍질, 인권 유린 등에 시달리며 "가장 치욕적인 폭력"(David 101)인 모유를 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때 모유는 "그녀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그녀만의 것"(Hostettler 412)으로 세드의 생명은 물론 흑인 후세대의 생명을 보장하는 상징물이 되어 이

에 대한 강탈은 흑인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일로 백인의 규율 권력에 단호히 저항할 것을 결심한 세드는 자신의 탈출에 결정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맞는다. 학교선생은 자신의 조카들을 시켜 흑인 노예들의 동물적 특징을 문서화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학교선생은 애초 마부석에 종이를 가득 싣고 스위트 홈에 들어왔는데 이 종이가 상징하는 것은 기록을 통해 흑인들을 영원히 백인의 노예이자 사유재산으로 명시하고 백인의 역사 속에 박제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선생은 흑인 노예들을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으로 여기며 "흑인의 발은 개의 발과 같아서 고통 없이 다닐 수 있다"(Hostettler 404)고 결론짓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이런 백인의 통치에 대한 흑인들의 적극적인 저항의 몸짓은 스위트 홈의 유모인 엘라(Ella)가 백인의 자식을 굶겨 죽이는 행위로, 세드가 백인의 자식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거부의 몸짓으로, 베이비 석스(Baby Suggs)가 백인의 자식을 노예선 밖으로 내던지는 극단적인 저항으로 표면화된 바 있다. 세드 또한 자신의 아이들이 동물로 분류되어 살아가게 둘 수 없다는 일념으로 비록 백인 통치의 영역에서나마 자율성을 찾기 위해 탈출을 결심하지만 탈출 전 그녀는 백인이 가한 채찍질로 다시 한 번 인간의 신체를 표적으로 삼는 규율 권력에 잠식당하게 된다. 이 일로 세드는 등에 벚꽃 모양의 상처를 새기게 되고 이는 이후 세드의 도망을 도운 백인 여인 에이미 덴버(Amy Denver)가 경악하는 장면을 통해 그 억압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물론 이 상처는 훗날 세드가 자신의 생명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영원한 표식이 되지만 그녀가 속한 백인의 영토가 그녀에게는 강제수용소를 넘어 몰살수용소로 작용했음을 증명한다. 스위트 홈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흑인들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아도 법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공간으로 백인들이 흑인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수용소일 뿐인 것이다. "수용소란 예외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49)인 만큼 흑인들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경영되고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제재 없이 자행될 수 있어 이곳에서 세드는 난민과도 같은 처지에서 필사의 탈출을 해야만 한다.

푸코의 권력은 주권자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권력관계는 늘 역전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투쟁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비록 푸코의 권력은 권력에 예속된 자유를 전제하지만 세드는 백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자

신과 자녀들의 온전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인 베이비 석스가 먼저 탈출해 있는 오하이오 주 블루 스톤가 124번지로 도피한다. “자살만이 노예가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Dillon 626)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드의 자유를 향한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앎의 반란의 결과이자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주권자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의미 있는 투쟁이 된다.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음을 강조하였기에 이때의 세드의 저항은 물질 감시와 인간의 예속화를 당연시하는 절대 권력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흑인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124번지에 가까스로 도착한 세드에게 있어 이곳 124번지는 장소를 벗어난 “장소확정”(아감벤『목적 없는 수단』, 54)으로 영속적인 예외공간이자 새로운 생명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억압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 공동체에서 세드는 오래지 않아 자신이 죽인 딸아이이자 또 다른 권력자인 육화된 빌러비드(Beloved)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과거와 화합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세드는 도망 노예 신분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들마저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게 두고 볼 수 없어 학교선생 일당에 쫓기는 상황에서 두 살도 채 안된 빌러비드를 이곳에서 살해했다.[6] 물론 이는 세드의 “절망적인 자아 인식의 행위”(Fox-Genovese 56)이자 “주인의 재산”(Gogoi 37) 축적을 무력화 시키는 강력한 투쟁으로 자신의 주권을 규정짓는 자들에게 더없이 확실한 자유의 외침을 쏟아낸 행위이다. 이는 비록 미완으로 끝난 저항이지만 세드가 “자신의 아이들이 백인의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Gogoi 63)하고 흑인의 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백인의 규율 권력과 생명정치를 좌절시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백인의 통치성이 온전히 흑인들의 통치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세드는 다시 한 번 흑인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며 고립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영아살해 사건으로 인해 세드는 18년 동안 숫자로만 존재하던 감옥과도 같은 124번지에 스스로 감금된다.

[6] 이 사건은 1856년 미국의 신시내티에서의 도망 노예였던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라는 흑인 여성의 실제 이야기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죽인 후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살인죄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에 대한 도둑질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Schadler 2).

이로써 흑인 공동체와 화합하지 못한 채 동족 사회 내에서도 예외상태에 놓이게 된 세드는 비록 백인 체재의 중심부를 이탈해 흑인의 법과 권리를 온전히 찾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편견의 수용소인 124번지에서 소외를 통한 포함적 배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승리자가 되어야만 전쟁이 종식된다고 보는 푸코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가 "평화의 암호"(『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71)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벌거벗은 생명이었던 빌러비드는 세드가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이중의 호모 사케르가 되지만 육화되어 극적으로 세드 앞에 나타난다. 이는 이제 칼의 권리가 빌러비드의 손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드는 이곳에서 다시 한 번 체제 내부의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빌러비드의 통치 권력에 직면해야만 한다.

> 덴버는 어머니의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희미해지는 걸 보았다. 세드의 눈빛은 살아있었으나 죽은 듯 했고, 매우 경계하고 있지만 텅 빈 듯 했으며, 빌러비드의 모든 것에 온통 집중해 있었다. . . . 덴버는 또한 엄마의 축제용 셔츠의 소매가 그녀의 손가락을 덮는다는 걸 알았다. 한때는 발목이 노출되던 치맛단이 이제는 마루에 끌린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잘 치장을 한 채 절뚝거리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자신들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 소진되어 간다는 것도 알았다.
>
> Denver saw the flesh between her mother's forefinger and thumb fade. Saw Sethe's eyes bright but dead, alert but vacant, paying attention to everything about Beloved . . . She also saw the sleeves of her own carnival shirtwaist cover her fingers; hems that once showed her ankles now swept the floor. She saw themselves beribboned, decked-out, limp and starving but locked in a love that wore everybody out. (285-6)[7]

세드의 영혼을 통치하는 빌러비드는 두 살도 채 안 되어 살해되었던 자신의 한을 세드에게 풀며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6개월만 지나면 제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질투를 느끼고 고통을 알게 되며 공

[7]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2004) 이후 이 작품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 페이지 숫자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감을 할 수 있기에 빌러비드가 세드라는 또 다른 지배 메커니즘에 의해 희생당한 이후 이처럼 세드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18년 만에 124번지에서 세드를 조우한 스위트 홈의 동료인 폴 디(Paul D)는 세드를 만난 후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채울 수 있는 폭발력을 느낀다"(Hostettler 412). 이는 폴 디가 또 다른 수용소이자 금지구역과 다름없는 이곳 124번지에 감도는 빌러비드의 사목권력의 기류를 감지하는 대목이다. 이때 사목권력이란 개인과 집단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배려의 권력이기에 빌러비드는 세드의 영혼을 통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녀의 벌거벗은 자아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빌러비드는 이 작품에서 신과 인간의 목자로서 흑인의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생명 권력의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 빌러비드는 언 개울에서 세드와 그녀의 막내딸인 덴버(Denver)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순수한 기쁨을 선사하고 나아가 세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써 세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다. 빌러비드는 "세드의 고통스러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일깨우는 힘"(Perales 22)으로 궁극적으로 그녀 내부의 정신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목권력이 지향하는 손수 먹이는 자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이 작품의 초반부에 유령으로 존재하던 모습을 벗고 세드에게 선물처럼 육화되어 돌아온, 흑인 여성의 생명을 대표하는 빌러비드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기꺼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존재의 드러냄은 본격적인 "열림," "소통가능성"(아감벤『목적 없는 수단』, 103)을 공언하는 행위이기에 빌러비드가 새로운 생명의 통치성을 보여줄 것임을 전조하는 것이다. 그녀는 생중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드를 포함한 흑인 여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공동체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이런 빌러비드는 양철 담뱃갑에 트라우마로 점철된 자신의 모든 것을 봉인해둔 폴 디의 붉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세드의 또 다른 딸인 덴버로 하여금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며, 상처로 얼룩져 얼어붙어 있던 세드의 의식의 심연을 시나브로 자극하여 그녀 스스로 과거를 재기억하게 만듦으로써 푸코가 언급한 생명관리 권력의 참

의미를 구현한다.

비록 빌러비드는 생명을 절단시키며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사회 체제 내에서 희생되었지만 현재의 흑인의 삶과 미래, 생명, 노동, 흑인 정신, 종족애 등으로 집약되는 흑인의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최종적으로는 덴버를 통해 흑인 공동체를 집결시킨다. 흑인 여성들이라는 집단을 향한 빌러비드의 목자의 권력은 이제 그녀가 덴버의 자아를 일깨워 흑인 공동체로 하여금 변화를 도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로써 덴버는 유령 빌러비드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에 2년 동안 귀머거리로 지냈지만 이후 마을 축제가 있던 다음 날 육화되어 돌아온 빌러비드의 등장에 힘입어 124번지 내에서 재현되는 과거의 아픈 역사와 현재의 불통 그리고 미래의 희망 구현을 위해 그동안 단절되어 지냈던 공동체에 용감하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된다. 동족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이항대립이 다시금 재현되었던 124번지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였던 미래 세대 덴버는 그동안 백인은 물론 흑인 사회에서도 이유를 모른 채 철저히 배제된 삶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외부와 차단된 채 “충분히 세공되지 못한 앎들, 자격을 박탈당한 채 있는 일련의 앎들”을 의미하는 “예속된 앎”(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4)으로 인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내부로만 침잠했었다. 하지만 덴버는 빌러비드가 최종적으로 행사한 배려의 권력 덕분에 흑인의 위계화를 조장하던 공동체 주민들에게 결국은 그들이 직접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능동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 총 인원 30명이 모두 모여 124번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층계에 앉아 있는 덴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 더 젊고, 더 강인한, 심지어 잠든 채 잔디에 누워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인 자신들. . . . 거기에는 분명 어렸을 때의 행복한 그들이 있었다. 베이비 석스의 마당에서 놀면서, 다음날 떠오른 시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그들 말이다.
>
> When they caught up with each other, all thirty, and arrived at 124, the first thing they saw was not Denver sitting on the steps, but themselves. Younger, stronger, even as little girls lying in the grass asleep. . . . But there they were, young and happy, playing in Baby Suggs’ yard, not feeling the envy that surfaced the next day. (304)

궁극적으로 빌러비드는 흑인 여성들만의 생존 제의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공동체의 의미란 있을 수 없고 주권이 없는 삶이란 몰살되는 생명일 뿐임을 각인시켜준다. 일찍이 푸코는 인종(race)이라는 단어를 "민족이라는 의미로 사용"(『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68)할 수 있음에 주목한 바, 모리슨은 덴버의 용기 있는 책임의 결단을 통해 흑인이라는 인종이 민족이라는 생명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세드의 소식을 듣고 124번지 앞에 모인 흑인 공동체는 이제 벌거벗은 육체와 다름없는 삶을 산 그녀들의 또 다른 얼굴인 세드에게 그녀들이 부여할 죄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의 슬픔과 울음을 받아주고 서로의 절규를 들어주며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포용의 장을 열게 된다. 흑인 공동체는 이제 그동안 그들이 만든 세상에 악을 초래한 죄인으로만 규정한 세드를 진정으로 악을 드러낸 참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때 세드는 흑인 친화적인 백인 남성 보드윈(Mr. Bodwin)을 학교선생으로 착각하여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든다. 세드의 이런 행동은 특히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녀가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에게 가하는 사드-마조히즘적 권력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는 용감한 행동이 된다.

벌거벗음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던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아름다움, 베일에 싸인 것, 비밀의 관계에 천착하여 아름다움과 베일은 상호 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에 주목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베일 안에 있는 것이라야 변형이 없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비-베일 벗기기"(아감벤 『벌거벗음』, 136)를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을 유지하지만 살아있는 신체에서는 그 반대가 가능하여 "죽는 것은 모두 베일 벗기기가 가능"(185)하게 된다. 세드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베일 벗기기의 치유 과정을 통해 생명의 숭고한 벌거벗기로써 흑인의 생명 주권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빌러비드』에서 1세대 노예이자 몸의 언어를 찾으려고 한 성녀로 지칭되는 베이비 석스의 몸짓 또한 흑인 공동체를 위해 생명 주권을 획득하려 한 그녀의 사목권력의 몸짓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몸짓이 보여주는 것은 순수 매개성으로서의 인간의 언어활동-안에-있음이기 때문"(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71)에 그녀는 정작 본인은 모든 신체가 망가져 오로지 심장밖에 남아 있

지 않은 상태지만 흑인 공동체를 향해 늘 육신에의 사랑을 외친다. 이런 베이비 석스는 흑인의 고귀한 정신과 흑인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작품에서 생명 권력의 주체자인 세드의 생명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스스로를 억압하는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더 이상 전쟁은 안 돼. 그 혼돈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으렴. 칼과 방패를.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주며 조용히 훈계하는 목소리로 말해주면 세드도 그리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참담함과 후회와 아픔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녀의 무거운 칼들을 그녀는 저 아래쪽 맑은 물이 굽이치는 강둑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았다.
>
> Don't study war no more. Lay all that mess down. Sword and shield. And under the pressing fingers and the quiet instructive voice, she would. Her heavy knives of defense against misery, regret, gall and hurt, she placed one by one on a blank where clear water rushed on below. (101)

이로써 모리슨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한 『빌러비드』를 통해 더 이상은 엑소더스 상태에 있는 흑인의 감시와 소외와 배제가 아닌 흑인의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한다. 흑인이라는 상실된 인간, 벌거벗은 인간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들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영토 내부에서 힘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빌러비드』는 로마서 9장 25절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은 자라 부르리라"(3)의 의미를 생명 주권과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로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Ⅳ. 나가며

인간의 몸은 행동하며 의미를 생산해 내는 기관으로 역사적, 사회적 의미망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채식주의자』에서 영혜

의 식성의 변화는 곧 육체를 통한 급진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여성을 획일화하고 지배하는 남성 주권 사회에서 채식과 나무되기라는 자신의 몸-권력으로써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의 내적 모순을 고발하고 잘못된 규율에 대항하는 앎의 반란, 앎의 투쟁을 행하는 몸-주체로 거듭난다. "인간은 열림을 하나의 세계로 . . . 어떤 병영도 없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형시킨다"(아감벤『목적 없는 수단』, 104)는 언급처럼 그녀는 열림의 새로운 생명 형성의 노력으로 세상을 향해 주체적인 자유의 욕망과 희망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사회적 인식과 제약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거짓일 수 없는 자신의 몸으로써 시종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는 영혜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사고·행위·존재 방법을 일련의 작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푸코『자기의 테크놀로지』, 36) 해주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도달한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불사의 세계에서 비체로서의 생명과 주권의 수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변화의 힘과 가능성을 증명해 보인다.

한편 잔혹한 노예제에 대한 단순한 고발이 아닌 역사 속에서 누더기 진 노예제도를 생명의 힘으로 재해석하는『빌러비드』는 흑인 여성의 생명이 깃든 사랑을 밝히는 진실담론을 통해 진정으로 흑인의 자유와 존엄의 의미 그리고 생명의 통치성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비록 학교선생으로 대표되는 백인이 자신의 권력과 지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흑인들을 배제와 격리와 감시로써 다스리며 일방적인 권력의 남용을 보이지만 주인공 세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권 권력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벌거벗은 생명이 아닌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앎의 봉기, 벌거벗음에 대한 주체적인 통솔로써 흑인 여성들의 삶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스위트 홈에서 초자연적인 벌거벗음을 경험한 후 자신의 등의 상처를 생명의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생명권력에의 가능성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의 과감한 이동을 통해 백인의 규율권력에 강력하게 맞선다. 이후 그녀는 육화된 빌러비드의 사랑의 통치 권력 속에서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사실 세드에게 있어 빌러비드는 사악한 권력자처럼 등장하지만 그녀는 이 작품에서 최종적으로 사목권력을 통해 "6천만 그리고 그 이상"의 흑인을 위해 객체적 위치에 있던 흑인 여성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격상시키고 흑인 공동체

내에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빌러비드는 특히 감시와 소외와 배제로 점철된 흑인 여성들의 생명의 가치를 희생과 배려의 사목권력으로써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흑인의 자유와 평등과 화합에 기반을 둔 통치의 합리성을 구현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흑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빌러비드는 흑인의 안전과 주권의 사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목자의 구원과도 같은 선행의 통치로써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당한 목적으로 인간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두 작품에서 『채식주의자』의 영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힘-주체에 저항하며 자신의 몸-권력으로써 조에의 상태를 극복하고 영혼의 힘과 진정한 생명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빌러비드』에서 세드와 빌러비드는 흑인 여성의 예외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몸과 영혼을 구제하는 주체자로서 흑인 여성과 흑인 공동체가 가진 생명의 힘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빌러비드는 선행의 사목권력으로써 흑인 여성과 공동체의 궁극적인 생명 복구 그리고 생명의 능동적인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푸코가 주목한 다양한 의미의 통치 구현에 기여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두 작품에서 사회가 정한 주류계층의 지배욕, 권력욕, 정복욕을 차단할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들의 저항의 양상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규율을 벗어나 인간의 안전한 생명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한 비주류 생명 집단의 자기실현과 단순한 생존에서 진정한 가치가 깃든 생명으로의 재탄생이라는 생명의 통치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작가 한강과 모리슨이 주목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절대 권력과 통제의 힘이란 진정한 통치의 힘 앞에서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귀결되며 인간 존재의 고귀한 몸-권력 욕망과 육체와 영혼의 생명 복원 그리고 생명 통치의 힘의 의미를 새롭게 구현한다. 나아가 신체를 표적으로 삼는 해부정치(anatomo-politique)의 권력행사란 생명 복원의 힘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여 이들 문학의 미래 가치를 광범위하게 제고하고 있다.

Works Cited

Agamben, Giorgio. *Means without End*. Trans. Kim Sangwoon and Yang Changryol. Seoul: Nanjang, 2009. Print.
[아감벤, 조르조.『목적 없는 수단』. 김상운, 양창렬 역. 서울: 난장, 2009.]
_____. *Nudità*. Trans. Kim Younghoon. Kyunggi: In-Gan-Sa-Rang Publishing Co., 2014. Print.
[아감벤, 조르조.『벌거벗음』. 김영훈 역. 경기: 인간사랑, 2014.]
Benjamin, Walter.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Trans. Choi Sungman. Seoul: Gil Publishing Co., 2012. Print.
[벤야민, 발터.『괴테의 친화력』. 최성만 역. 서울: 길, 2012.]
David, Ron. *Toni Morrison for Beginners*. Danbury, CT: For Beginners, 2016. Print.
Dillon, Elizabeth Maddock. "Zombie Biopolitics." *American Quarterly* 71.3 (2019): 625-52. Print.
Foucault, Michel.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Trans. Autrement. Seoul: Nanjang Publishing House, 2011. Print.
[푸코, 미셸.『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서울: 난장, 2011.]
_____. *Society Must Be Defended*. Trans. Kim Sangwoon. Seoul: Nanjang Publishing House, 2015. Print.
[푸코, 미셸.『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역. 서울: 난장, 2015.]
_____. *Technologies of the Self*. Seoul: Dongmunseon, 1997. Print.
[푸코, 미셸.『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1997.]
Fox-Genovese, Elizabeth. "Unspeakable Things Unspoken: Ghosts and Memories in *Beloved*." *Viva Bloom's Notes: Toni Morrison's Beloved*. New Delhi: Viva Books, 2007. 54-56. Print.
Gogoi, Hasnahana. *Negotiation Black Motherhood in Toni Morrison's Beloved and a Mercy*. Saarbrücke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0. Print.
Gordon, Colin, Graham Burchell, and Peter Miller.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rans. Shim Sungbo, You Jin, Lee Kyuwon, Lee Seungcheol, Jeon Uiryung, and Choi Youngchan. Seoul: Nanjang Publishing House, 2014. Print.
[고든, 콜린, 그래엄 버첼, 그리고 피터 밀러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심성보, 유진, 이규원, 이승철, 전의령, 최영찬 역. 서울: 난장, 2014.]
Han, Kang. *The Vegetarian*. London: Granta Publications, 2015. Print.
Hostettler, M. "Telling the Past—Doing the Truth: Toni Morrison's *Beloved*." *Women's History Review* 5.3 (1996): 401-16. Print.
Jacobs, Harriet Ann.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New York: Signet, 2000. Print.
Kang, Mira. *Body Subject Power*. Seoul: Ihaksa, 2011. Print.
[강미라.『몸 주체 권력』. 서울: 이학사, 2011.]

Morrison, Toni.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2004. Print.

Murray, Alex. *Giorgio Agamben: Homo Sacer*. Trans. Kim Sangwoon. Seoul: LP Publishing Co., 2016. Print.

[머레이, 알렉스.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김상운 역. 서울: 앨피, 2016.]

Perales, Marta Allegue. *Blending the Fantastic and the Realistic: An Approach to Toni Morrison's Beloved*. Diss. USC, 2016. Print.

Schadler, Linda. *Embarking on a Journey of Self-possession. Women and Sla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San Francisco: Grin, 2012. Print.

Shukla, Bhaskar A. *Toni Morrison: The Feminist Icon*. Jaypur: Book Enclave, 2007. Print.

변효정 (대진대학교 / 부교수)
주소: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이메일: byunglish@gmail.com

논문접수일: 2022. 3. 31 / 심사완료일: 2022. 05. 10 / 게재확정일: 2022. 05. 13